

진도군 출신 박상권 조각가, 2억원 상당 조각작품 기증

매년 추가 작품 기증...기증 작품 관광지 등 설치 예정 김희수 진도군수 "귀중한 작품 고향에 기증해 감사"

진도군 지산면 출신 박상권 작가가 2억원 상당의 조각 작품을 진도군에 기증했다. 김희수 진도군수와 박상권 작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화) 열린 기증식에서 박상권 작가는 대표적인 '행복을 주는 사람'을 포함 총 7점, 2억여원 상당의 조각작품을 기증했다.

박상권 작가는 조선대학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다수의 전시회 개최와 주요 미술대전 수상 경력을 가진 조각가이다. 아름다운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진도의 관광·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박상권 작가는 매년 추가로 작품을 기증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해당 작품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도록 주요 공원과 관광지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김희수 군수는 "우리 고향에서 훌륭한 예술가가 배출되어 지역의 문화예술과 발전을 위해 탐과 노력이 깃든 귀중한 작품을 고향에 기증해 감사하다"며 "주민들에게는 가까이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보배진도군의 브랜드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고정식 단속 카메라 운영

강진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강진 중앙초등학교와 강진 동초등학교에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다. 강진군은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강진 중앙초등학교와 강진 동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설

치했다.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중앙초등학교의 경우 5분간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안심승차존이 있어, 어린이 통학 시 이를 이용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량 감소로 학생 안전과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학생들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영농기 대비 가뭄극복 선제적 대응

장흥군이 민·관 협치로 가뭄 우려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영농기를 대비해 한 발 앞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흥군 2022년 누적 강수량 916mm로 평년 1,504mm 대비 61%로 알려졌다. 현재 저수지 저수율은 76%로 가뭄이 계속될 경우 농업수 부족에 우려가 높다. 이에 장흥군은 가뭄상황 모니터링 강화, 용

수절약 및 홍보, 저수지 물가두기, 조유지(준설) 용수 펌핑, 용수손실방지를 위한 급수체계 및 비상연락 체계를 강화하고 가뭄 대비, 선제적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정영농을 위하여 가뭄 행동 매뉴얼에 따라 정후감지(관선)단계에서 초기 대응단계(주의, 경계)에 예비 격상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군, 가뭄 극복 총력 '설 명절 기간 제한 급수 해제'

비상 용수 운반, 수원지 준설, 해저관로 설치 사업 등 추진 박차

완도군의 2022년도 강수량은 765mm로 평년(1,425mm) 대비 53% 정도로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비상 급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완도군 전체 10개 수원지 저수율은 23.4%에 이른다. 노화율 100%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단수를 시행해왔으며, 소안면과 금일읍, 노화읍, 보길면도 제한 급수를 시행해왔다. 단, 다가오는 설에는 주민들과 귀성객들이 불편함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제한 급수를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군에서는 수량 부족 수원지 6개소에 철부선 4대와 급수차 30대를 투입하여 일 2,000톤의 비상 용수를 운반하여 물을 보충하고 있다. 저수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에 2개 수원지(부항제, 미라제)는 1차 준설을 완료하여 26,000톤을 확보하였고, 추가로 준설이 가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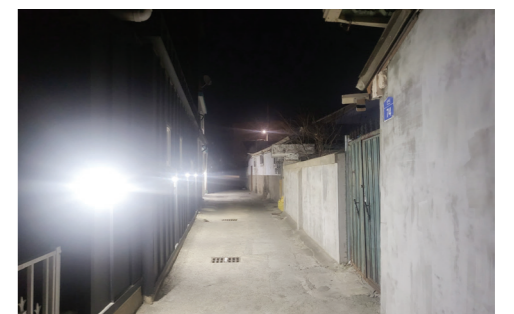
4개 수원지(용항제, 적치제, 해동제, 미라제)는 1월 중에 공사를 진행하여 약 4,200톤의 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군은 해마다 극심한 물 부족 고통을 겪고 있는 노화·보길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해저관로 설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저관로 설치 사업은 총 678억 원을 투입하며, 올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육상 21.9km, 해저 9.2km 등 총 연장 31.1km의 관로를 설치하게 된다. 해저관로가 설치되면 노화, 보길, 녀도, 백일도, 흑일도, 마라도 주민들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월 11일 환경부 장관의 가뭄 대응 현장 방문 시 노화·보길권역, 약산·금일권역 광역상수도 설치 사업비 1,541억 원 중 국비 1,078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라고 밝히면서 "광역상수도 공급 등 장기적이고 근본

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에서는 가뭄 장기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는 현재 수원지 주변 하천과 관정 등에서 수원지로 펌핑 작업과 함께 탱크로리를 이용해 계속해서 수원지에 물을 보충하고 있다. 2단계는 수원지별로 급수 가능일이 30일 이하로 떨어질 때 제한 급수 일을 2일 급수, 4일 단수에서 2일 급수, 7일 단수로 단수 기간을 늘리고, 각 마을 단위에 5~10톤 물탱크를 설치하여 주변 관정과 샘물을 취수하여 생활용수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급수 가능 일을 늘릴 예정이다. 3단계는 수원지가 고갈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대형 철부선 등을 동원하여 완도읍에 있는 광역 상수도망에서 도서지역으로 최소한의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군 "솔라안심등'으로 어두운 골목길 환해졌어요"

해남군 해남읍의 남외마을 골목길이 '솔라안심등'으로 환해졌다. 해남군은 해남읍 남부길 및 남외2길에 솔라안심등 30개소를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솔라안심등'은 낮 동안 태양광을 충전시켜 저녁이 되면 LED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방식으로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비교적 저렴한 설치비용과 별도의 유지비

가 들지 않아 가로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해남읍 해리9길~수성3길, 평남1길~평남3길, 이번 남부길 등에 210여개의 솔라안심등을 설치했다. 해남읍 남외리 김성술 이장은 "구도심 골목은 좁고 어두운데 가로등도 많지 않아 여성과 노인분들이 혼자 지나다니기 위험한 면이 있



었다"며 "솔라안심등 설치로 골목이 밝아지니 불안감이 사라져서 매우 좋다"며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